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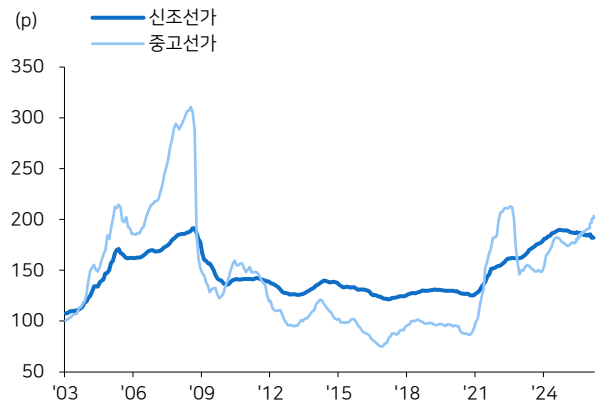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4. 3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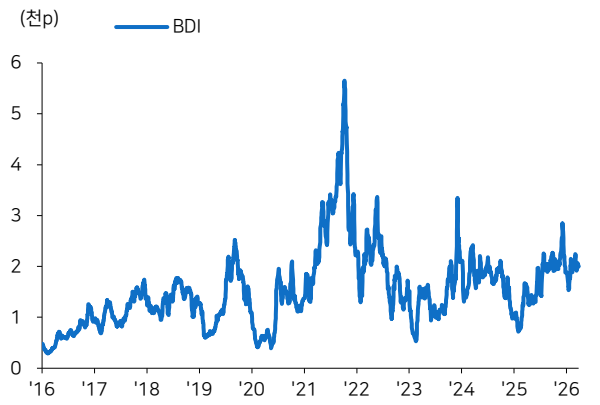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2.1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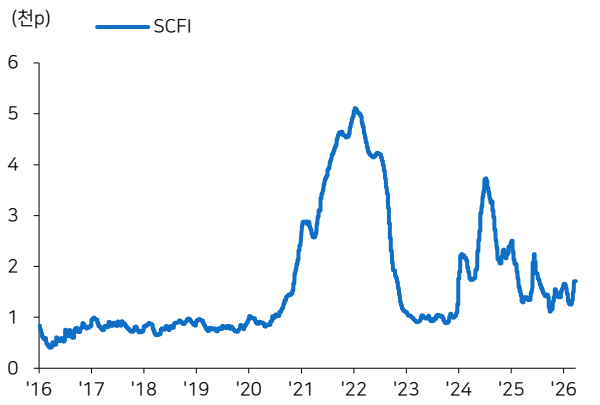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90.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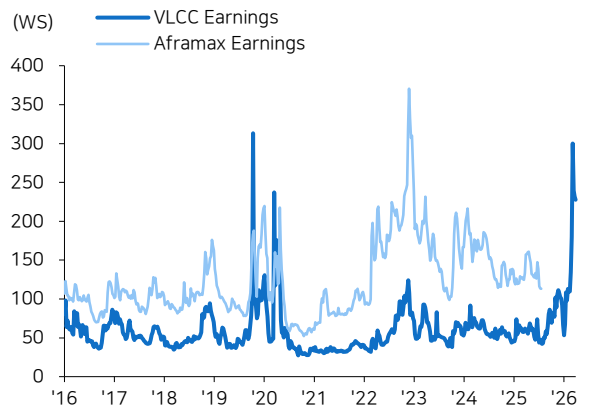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995.0p (-3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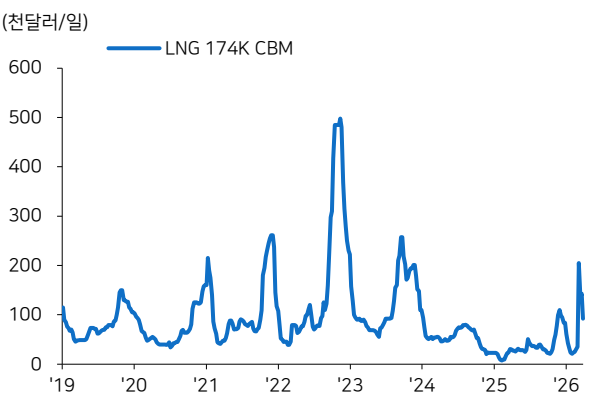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826.8p (+120.3p WoW)



VLCC Spot Rate 227.5WS (-4.1p WoW)



LNG Spot 운임 92.5천달러 (-50.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First-quarter LNG newbuildings ratchet up with return of independent owners (TradeWinds) https://zrr.kr/bMHqO4

2026년 1분기 동안 최소 35척의 LNG 운반선 신조 계약이 체결되며 전년 동기(3척) 대비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Eastern Pacific Shipping, Maran Gas Maritime 등 주요 독립 선사들이 발주를 주도했으며, 대부분 Shell이나 Cheniere Energy 등 대형 화주와의 장기 용선 계약을 바탕으로 발주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짐. 중국의 Jiangnan Shipyard는 한국 조선소 대비 척당 약 2,000만 달러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6척을 수주하며 공격적인 영업을 펼쳤다고 알려짐. 업계에서는 향후 7년간 수요 충족을 위해 매년 약 40척, 총 272척의 추가 발주가 필요하다고 전망하나, QatarEnergy의 신조선 인도 지연 여부와 Mozambique LNG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등이 주요 변수로 전해짐.

李대통령, 美 상원의원단 접견…"핵잠·조선 등 협력 가속화" (뉴스핌) https://zrr.kr/LdIJFN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상원 의원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핵추진잠수함과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됨. 특히 양국이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한 협력 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협력 분야로 ▲대미 전략투자 이행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추진잠수함 ▲조선 산업 등을 꼽았다고 전해짐. 또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알려짐.

정승균 한화오션 부사장, 연방정부 투자 몰린 加 앨버타 주지사 회동 (더구루) https://zrr.kr/qRVyOO

한화오션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방산 거점으로 부상 중인 앨버타주와 접촉하며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고 보도됨. 정승균 한화오션 부사장은 최근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지사와 만나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짐. 이번 행보를 통해 수주 심사의 핵심 지표인 산업기술혜택(ITB) 부문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현지 제조 인프라와 부품 공급망을 연계해 잠수함의 현지 건조는 물론 장기적인 유지·보수·정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생태계 모델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에틸렌 가스 수급 안정…선박 생산 차질 없어" (뉴스 1) https://zrr.kr/6LNff3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중동 사태에 따른 에틸렌 가스 수급 상황과 관련하여 국내 조선업 생산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됨. 협회는 선박 건조 공정에 필요한 에틸렌 가스 재고를 사전에 확보하고 정부 및 업계와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현재 주요 생산 공정을 정상 운영 중이라 전해짐. 국내 조선업계는 복수 공급선 확보와 재고 운용 효율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어 단기적인 공급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이라 알려짐. 향후 중동 정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 확보 및 대체 조달 방안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 보도됨.

Russia needs fresh fleet capacity to maintain Yamal LNG exports, researchers say (TradeWinds) https://zrr.kr/4NfDxO

EU의 러시아산 LNG 수입 금지 조치가 2027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러시아 Yamal LNG 프로젝트가 현재의 수출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 선박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보도됨. 노르웨이 CHNL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1분기까지 Yamal LNG 수출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럽으로 향하고 있으나, 향후 아시아로 수출 경로를 완전히 전환할 경우 운송 거리 증가와 북극해항로의 제한적 운항 조건으로 인해 기존 함대의 운송 효율이 절반 이하로 급감할 전망으로 전해짐. 기존 쇄빙 LNG 운반선단만으로는 연간 수출 횟수가 2024~2025년 대비 2배 이상 낮은 120~130회 수준에 그칠 전망이며, 러시아가 수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쇄빙 선박의 추가 확보와 환적 능력 확대, 물류 체계 전면 재편이 필수적이라고 알려짐.

Full scale of Strait of Hormuz traffic slump revealed after month of war (Upstream) https://zrr.kr/Ob1z7p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및 가스 운반선 물동량이 지난 3월 전년 동기 대비 최소 94% 급감했으며, 이는 해협 통행이 회복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라고 보도됨. AXSMarine 데이터에 따르면 유조선과 가스선의 입출항 통행량은 작년 대비 93~96% 줄어들었고 건화물선 또한 80~90%대 감소율을 기록 중이며, 소수의 우호국 선박만이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제한적으로 통과하고 있다고 전해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협 개방을 위한 군사적 개입과 철수 사이에서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며 향후 해협 통행 영토권을 공유하는 이란과 오만 간의 공동 메커니즘을 통해 보안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